

제1차 “통합연구학술상” 수여



이상규 교수

이번 92년 여름 통합연구학회 학술발표회 기간 중인 8월 18일에 통합연구학술상이 처음으로 수여되었다. “통합연구학술상”은 기독교적 학문연구를 촉진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학술지「통합연구」에 발표된 논문 가운데 가장 우수한 한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것으로서 이번이 그 첫 시도였다. 이번 수상대상 논문으로는 지난 91년「통합연구」지에 게재된 것들로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평가와 환경과의 관계”(이광원),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교육”(문선재) 등이 유력한 후보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부요의 양면성”(이상규)이 선정되었다. 아래에 수상소감을 소개함으로 그날의 잔잔한 감동을 같이 나누고자 한다.

수상소감

감사합니다. 저의 변변치 못한 소품에 대해 이처럼 명예로운 상을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통합연구학회장 원동연 박사님과 관계자 제위께 감사드리며 기독교대학 혹은 기독교학문운동을 위해 열정과 애정을 쏟아오신 통합연구학회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부와 가난”에 대해 논문을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통합연구」 편집인 전광식 박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예리한 통찰력과 사려깊은 충고가 없었다면 저의 글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학술상의 수상자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재가 과연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이 상은 사실 저의 논문에 대한 평가라기 보다는 앞으로 저의 학문활동을 위한 격려와 후원으로 생각하며 부족하지만 기독교학문운동에 동참하며 학문에 있어서 왕적 소명을 확대해 가는 일에 조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참석한 존경하는 여러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개인적으로 신앙과 학문, 그 관계성 정립을 위해 고심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은 학문과 삶에 있어서도 그분의 주재권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신앙고백적 학문활동은 저의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있어서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기독교 학문에 대한 이론 정립에 매진해 온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와 통합연구학회는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통합연구학회는 지금까지도 우리 학계와 교계에 왕적 소명을 감당해 왔지만 앞으로는 더욱 값진 봉사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이와같은 학술단체로부터 수여되는 이 상은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명예로운 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상을 수상하면서 학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상을 수상하면서 저의 논문에서 제기하였던 재산과 부

의 문제를 오늘의 한국교회의 소유문제에 적용시키면서 저의 작은 생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더 이상 가난한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가난한 농촌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한국의 교회들이 부유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당 건물은 물론이지만 교육관과 부대시설을 지니고 있고 어떤 교회는 기도원과 수양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비록 특수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어떤 교회는 교회묘지와 임야, 빌딩과 부동산을 지니고 있고 또 겨우 10년 15년 된 교회가 교회사 책을 편찬해 내고 각종 문서를 출판할 만큼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긍정적인 측면이 적지 않지만 교회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 그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가 이땅의 질서 속에서 재산을 소유하고 또한 재산이 갖는 소유의 의미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기독교 본래의 성격, 곧 ‘나그네 성’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중세교회에서 보는 바처럼 교회가 재산을 소유하고 부를 향유하게 될 때 순례자로서의 교회공동체는 그 사회속에 안주하는 보수지향적 제도교회로 변모되어갔던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이상의 부를 소유하고 그 부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나그네 의식은 사라지고 안주의식이 대치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교회의 제도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는 이 땅의 역사현실 속에 안주하려는 의식을 지녀왔습니다. 이땅의 현실과 부와 명예를 상대화 할 수 있었던 ‘나그네 성’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중성화시켜 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기본적인 필요, 그 이상의 재산의 소유는 교회의 영적 퇴보와 타락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처음의 교회는 별도의 집회장소도 없었고 어떤 소유도 없었습니다. 당시 택함받은 무리들만이 교회의 전부였습니다. 이들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적어도 3세기 초까지는 교회가 별도의 교회당 건물을 소유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점차 교회가 재산을 소유하기 시작했고 소유권자로서 권리를 향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말하자면 교회의 제도와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교회의 영적 퇴보의 시작이었습니다. 에밀 브룬너(Emil Brunner)의 말을 빌리면 에클레시아가 키르케(Kirche)로 변모되었는데 이것이 교회의 타락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세교회는 이 점에 대한 실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수도원 운동은 처음부터 엄격한 규율과 청빈을 이상으로 삼았습니다. 즉 서방세계의 수도원 운동의 본산이자 전형이었던 베네딕트 수도원과 그 이후의 수도원 규약은 개인의 재산소유는 엄격하게 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도원 자체의 재산은 허락되었습니다.

수도원이 과하도한 재산을 소유하고 부를 축적하게 되자 수도원 본래의 정신과 기강은 문란하게 되었고 결국 수도원은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클루니 수도원이나 시토 수도원 등 수도원 개혁 운동이 일어났으나 이들과저도 재산의 소유 때문에 부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재산의 소유를 반대하고 일어난 수도원이 재산의 소유로 부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의 소유는 영적 위험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재산의 소유가 갖는 영적 위험성을 감지하고 절대 빈곤과 청빈을 이상으로 하는 프란시스 수도단 운동이 일어났으나 프란시스의 사후 개인이 아닌 수도원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이 수도단 운동도 영적 퇴보의 전례를 답습하였습니다. 물질을 향한 개개인의 탐욕은 수도원이라는 공유적 바탕 위에서 비정상적으로 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재산, 그 이상을 소유할 때 영적 위험성을 지닐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더욱이 그 교회가 소유, 곧 재물 혹은 재산을 통제할 수 있는 영적, 도덕적, 윤리적 통제력을 지니고 있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 재산의 소유는 도리어 상당한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재산을 소유한다고 할 때, 그것이 갖는 사회적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의미입니다. 곧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파괴하고 교회를 속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부에 내재한 영적 위상성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때 긍정적인 측면보다 그것이 갖는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사이에 서 있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써, 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영적 특성을 상실할 우려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케 하는 나그네적 삶의 지향성이 파괴되고 교회공동체를 속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재산의 소유가 가져올 수 있는 영적 위험성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갖는 부의 위험성을 간파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성 버나드(St. Bernard of Clairvaux)였습니다. ‘유럽의 양심’이라고 불리우던 그는 부는 개인이나 개인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나 조직에도 똑같은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고 “교회는 가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개인이나 교회가 부의 통제를 영적, 도덕적, 윤리적, 분별력을 건지하지 못했을 때는 차라리 가난해지는 것이 더욱 유익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재물을 신앙으로 통제할 능력이 없다면 재산을 소유하지 않든지, 재산을 통제할 수 있는 영적, 도덕적 힘을 배양하든지, 아니면 인간의 불신적 탐욕과 이기심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든지 그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재산이나 소유의 청지기직에 대한 분명한 이해, 재물이 갖는 물신적 성격을 헤아려 보는 영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오늘의 한국교회 안에 창궐하는 맘몬이즘을 극복하는 길인 동시에 교회가 세속적 가치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긴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난해 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삶속에서도 동일하게 적

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유함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사이에서 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나그네성’을 상실케 할 위험이 있다면 가난해 질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겨우 학문의 출발점에 선 부족한 사람에게 더없이 값진 상을 주신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 상의 취지와 정신에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을 타파하고 학문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일에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1992. 8. 18.

이상규